

곡성 농업회사법인 개발 벼 해충방제 '멸충대장골드'

전국 최초 친환경 유기농자재 인증 받아

전남지역 농업회사법인인 (주)자연과미레가 벼 해충방제 '멸충대장골드'를 개발, 전국 최초로 친환경 유기농자재 품질인증을 받았다.

친환경 유기농자재 품질인증은 효과와 효능이 보증되지 않는 목록공시제와 달리 제품의 효능과 성분 함량을 보증하는 제도로 적용되는 작물과 병충해에 대해 품질인증 표기가 가능하며 효능에 대한 시험성적 내용도

공개 표기할 수 있다.

멸충대장골드는 벼 애벌레, 흑명나방, 이화명나방 등 병해충에 대한 효능을 확인받아 인증을 받게 됐다.

전남도 생물방제센터의 기술지원을 받아 개발한 제품으로, '친환경농업 1번지'를 자부하는 전남에서 국내 처음으로 인증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주)자연과미레는 이 제품을 조

달청에 등록해 전국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와 가로수, 도시숲 등 친환경 방제사업에 적극 공급할 계획이다.

박대호 대표는 "품질인증 획득으로 일선 시·군과 농협, 농업인연합회 등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친환경농업단지 병충해 방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남생물산업진흥재단 생물방제센터 제2호 졸업기업인 (주)자연과미레는 벤처기업 인증,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인증, 품질경영 ISO9001 인증,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인증, 2012년 전남도 유망 중소기업 지정 등을 받은 친환경 유기농자재 및 기능성 영양제 전문 제조업체다.

곡성군 오산면 5500㎡ 부지에 37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3월 연구소와

공장을 짓고 현재 50명을 고용하고 있다.

최근 중동권과 중남미 등에 해외 수출기반을 다지며 파키스탄과 400억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전남도 친환경 유기농자재 업계 최초로 기업을 공개해 코스닥상장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임성훈 나주시장이 왕곡면 석고마을의 마을공동급식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배식봉사를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 마을공동급식 300곳으로

분격 영농철 맞아 확대

나주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중인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올해는 300여 개 마을로 확산된다.

6월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조례를 제정해 급식사업을 시작한 이래 매년 증가세를 보였던 급식대상 마을 수가 올해는 300개 마을로 늘었다. 이는 민선 5기 임성훈 시장 취임 이래 5배나 늘어난 수치다.

마을 공동급식 사업은 농번기철에 점심식사를 위해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농업인들의 일손을 덜어주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다져가자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봄과 가을철 두차례 농번기에 공동급식 시설을 갖추고 15인 이상 급식이 가능한 마을에, 20일 동안 공동급식을 준비할 조력인의 인건비 4만원과 급식 재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3월 처음으로 나주시 왕곡면 석고마을 주민 20여 명이 함께 모여 급식 도우미 박란

희씨와 부녀회원들이 장만한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주민들은 "농사일을 하는 주민들 뿐만 아니라 마을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건강을 걱정해준다 보면 면면대사는 자식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며 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한목소리로 칭찬했다.

이날 마을회관에서 가진 급식현장을 찾은 임성훈 나주시장은 "주민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점심을 하는 것은 한끼 식사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오순도순 모여서 웃음꽃을 피우는 사랑방의 역할에 더 큰 의미가 있다"며 "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안부까지 확인해서 노년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나주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올해 상·하반기 각각 150곳씩, 모두 300개 마을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일손절약과 어르신들의 돌봄문화 조성 등 농촌마을의 맞춤형 공공복지 서비스에 적합한 모델인만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전남도 '태풍피해 항구 복구' 전국 1위

전남도는 전국 방재 우수사례 경진서 '태풍피해 항구복구 T/F팀 구성 및 운영' 사례가 대부분이 전국 1위를 차지해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경진은 소방방재청과 한국방재협회가 주관한 것으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28건의 우수사례가 출품됐다.

전남도는 '태풍피해 항구복구 T/F팀 구성 및 운영' 사례를 출품해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등 3차례의 종합심사를 통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장흥군에서 출품한 '민관 협력시스템을 활용한 신속한 재해 응급복구'는 장려상으

로 선정돼 안전행정부장관상을 수상한다.

오광록 전남도 방재과장은 "해마다 반복되는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개정 등 7건의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했다"며 "방풍림 조성 등 14건에 대해서도 항구 복구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오늘 28일 '방재의 날'에 열리며 우수사례는 소방방재청이 각종 사례발표회와 방재사례집 게재를 통해 타 시도에 소개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휴식중인 새고막 관리선

6일 오후 여수시 울촌면 상봉리 갯벌에 한 척의 새고막 어장관리선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전국 생산량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여

수 새고막은 6월~7월에 본격적인 채취가 시작된다. <여수시 제공>



기아차 '셋별회' 화인케어요양원서 봉사활동

지난 4일 담양 가산리 화인케어요양원(원장 이형수) 운동회에 기아자동차 셋별회(회장 박한수) 회원 10여 명이 가족들과 함께 방문해 입소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쳐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사진>

4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셋별회는 화인케어 요양원,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매년 봉사활동과 물품을 전달하고 있으며 올해도 변함없이 화인케어 요양원을 찾아 입소 어르신들을 기쁘

게 했다. 입소 어르신 30여명은 몸이 불편해 비록 휠체어에 의지하며 봉사자들과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1000여명 요양원 잔디밭에서 마음껏 웃으며 동심의 추억을 그렸다.

셋별회 박한수 회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렇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 기쁘다"며 "변함없이 봉사활동을 해주는 셋별회 회원들의 사랑나눔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재근기자 jgg@

장성 '농기계 임대사업' 시범 지자체 선정

국립농업과학원 개발 프로그램 시험 운영

장성군이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개발한 농기계임대사업 효과분석 프로그램의 시범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는 국립농업과학원이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전에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 및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현장 시험하는 것으로, 전국 134개 시·군 중에 임대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인 장성군과 이천시가 선정됐다.

사업비는 농촌진흥청이 전액 부담하며 오는 10월까지 ▲농기계임대사업 연간 투입비용 산출(시설, 장비, 인건비 등) ▲임대농기계 이용 대비

타작업 방법에 따른 투입비용 비교 분석 ▲운영상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효과 분석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험운영 후 분석된 자료는 임대사업의 운영에 관한 인력, 임대농기계, 시설 등의 예산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전국 농기계임대사업소에 확대 보급될 예정이다.

장성군 농업기술센터는 현재 55종 254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50농가에 1800여대를 대여하는 등 활발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농업용굴삭기, 못자리형성기, 퇴비살포기, 논둑제초기 등의 신 기종을 구입해 영농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3월부터 새 임대장비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농기계 이용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과 적기 영농 추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비롯해 어려운 농업현실에서 농업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화순 힐링푸드페스티벌 체험행사 '풍성'

화순군은 오는 16일부터 4일간 열리는 '2013 화순 힐링푸드페스티벌'에서 가족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막일인 16일 화순 공설운동장 잔디구장에서 전국 학생백일장대회가 열린다.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화순문화원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참여, 축제장 풍경과 화순의 문화유산에 대한 그림과 글짓기 대회를 펼친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병아리 예술제, 마술공연, 비누방울 공연, 어린이밴드 공연 등도 진행된다.

또 두꺼비집 만들기, 진흙나라체험, 물갈퀴 만들기, 짚풀인형만들기, 원예치료, 물고기 잡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화순군 관계자는 "축제장에서 각종 향토 음식과 다문화 음식을 만날 수 있고 다양한 체험행사를 통해 화순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새로운 패러다임의 거침없는 뉴스쇼



**TV조선
뉴스쇼**

관



박은주 조선일보 문화부장



최희준 TV조선 취재에디터



김미선 TV조선 정치부 기자

월~금 밤 9시 50분 방송

대한민국 어디서나
채널 19번



TV조선